

人生 哲學者 「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四)

田元培

록크나 휴-브나 칸트와 같은 認識論者들이 已成한 意識主體의 머릿속에는 單純한 思惟活動인 理性의 □□□은 흐르고 잇을는지 모르나 現實의 붉은 피가 通하는 主體는 아니 었다. 이에 反하여 딜타이의 意識主體는 어디까지든지 意慾과 感情과 思惟를 가진 現實의 具體的 全人間的 生活過程이었다.

그러므로 딜타이에 依하면 우리들이 哲學 上에서 提起하는 모든 問題는 固定한 우리의 先驗的 認識能力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人間的 本質의 全體에서 出發하는 發展歷史만이 解決할수잇는것이라 하엿다.

以上에 論述한바와 같이 딜타이는 精神科學의 認識論的 根據를 意慾과 感情과 思惟를 包含한 全人的 生活의 『構造聯關』을 究明할 必要가 잇다.

우리는 딜타이 哲學의 根本概念인 『構造聯關』이 칸트 『純粹 理性 批判』中의 悟性範疇에 類似한 方法的 意味를 가지고 잇는 것을 發見할수잇다. 딜타이가 칸트의『純粹 理性 批判』에 對立하여 『歷史 理性 批判』이란 課題를 내건 것을 보드라도 우리는 딜타이의 『構造聯關』이란 概念이 칸트의 自然 科學的 悟性範疇에 對峙된 精神科學의 說明原理임을 能히 짐작 할 수 잇다.

칸트에 잇어 서는 悟性範疇, 例를 들면 現實性, 實體, 因果律은 直觀內容에 多樣性이 一個의 意識內에서 聯關을 作成하는 條件, 다시 말하면 雜沓한 諸現象이 客觀的 世界를 構成하는 條件이 되어 잇다. 따라서 칸트에게 對하여는, 悟性範疇는 認識의 可能制約이 되어 잇다. 그러나 딜타이는 칸트의 悟性範疇가 自然現象의 認識 條件은 될지나 精神世界에는 何等の 權利가 없는 것을 論證하고 스스로 精神科學의 基本概念을 따로 探究하엿다.

勿論 칸트는 自然 科學과 數學과같은 精神 科學의 認識論을 確立한데 功績이 없지 아니 하다. 그러나 헤-겔이 正當히 말한바와 같이 사람은 時代의 아들이다. 칸트가 自己의 地位를 『코펠니커스의 轉回』에 比한바와 같이 그가 제아무리 偉大한 不朽의 業績을 哲學史上에 남기 었다 할지라도 칸트는 그

時代의 限界를 超越하지는 못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칸트時代에 있어 서는 科學이라면 곧 自然科學과 數學을 가르쳐 말하였다. 그리고 歷史 科學이라는 것은 아직도 時代人의 意識밖에 잇었다. 그러므로 칸트가 科學의 認識論의 根據를 追究할제 自然 科學과 數學과 같은 精密 科學만을 眼中에 두었든 것은 決코 무리한 일이 아니 었다.

웨그러나 하면 精神 科學이라는것은 칸트以後에 發達한 學問인 까닭이다. 만일에 칸트가 現代人이었드라면 반듯이 科學의 原理와 方法에 잇어서 두 가지 種類를 區別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超越할수없는 時代의 限界가 있음을 어찌하라!

딜타이에 依하면 精神 科學이 取扱하는 歷史的 世界는 意慾과 感情과 思惟를 가진 現實의 人間生活過程이다. 칸트의 悟性 範疇라는 것은 이 人間의 生活過程에서 思惟의 抽象作用에 依하여 抽出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當然히 一面的이어서 到底히 精神生活의 全體性을 把握하기에 不充分한 것이다.

그러면 精神 生活 過程의 認識에는 自然現象의 認識原理와는 다른 原理가 잇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딜타이의 所謂『構造聯關』이다.

딜타이에 依하면 構造聯關은 表象과 感情과 意慾과 같은 人間의 精神生活의 모든 過程 卽 感情生活 意志活動 思考作用이 精神生活의 總體속에 連結하는 原理다. 그런데 構造聯關의 첫째 性格은 目的 性에 잇다. 웨 그런고 하니 精神生活은 自然 現象과 달리서 不快를 避하고 快를 取하는 本能□定과 여러 가지 目的을 追求하는 生命充實의 目的 論的 關聯인 까닭이다. 그리고 둘째 性格은 發展性이다. 웨 그런고 하니 精神生活은 낡은 土臺우에서 새로운 것을 建設하는 過程 다시 말하면 그는 表象과 價值規定과 意志條件의 再生産過程인 까닭이다. 生命은 過去를 內包하고 또 未來를 志向하는 永遠한 現在다. 이 第二의 性格이 딜타이의 所謂 收得聯關이다.